

985억 자금조달... 바이오 전문 VC 대거 참여

인벤티지랩

목표금액보다 123% 상회 수준
기존 투자자 상당수 재참여 확인

VIL-드러그플루이딕 등 사업화
큐라티스 바이오플랜트 설비 확장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총 985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초 800억원 규모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으나,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목표금액을 123% 상회하는 투자수요가 확보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자금조달에는 회사에 대한 비상장 시기 및 상장 이후 메자닌 투자에 참여했던 기존 투자자들이 상당수 재참여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인벤티지랩의 경쟁력과 사업적 성과를 숙지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 그룹에 의한 반복적인 자금 조달은 회사의 플랫폼 기술력과 사업적 기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투자에는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VC)이 대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플렉서스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스톤브릿지벤처스, 스타셋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BNH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투자,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전문성을 보유한 벤처캐피탈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오아시스매니지먼트(Oasis Management), 델타플렉스캐피탈(DeltaFlex Capital) 등 해외 투자자들도 참여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투자자금을 연구개발(R&D), 운영자금, 우수약품제

조관리기준(GMP) 시설 투자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과 바이오의약품 피하주사(SC) 제형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딕(BioFluidic)'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확보된 투자금 중 일부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큐라티스 바이오플랜트 내 제조설비 확장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커머셜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대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고, 특히 비상장 시기부터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기존 투자자들의 재참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인벤티지랩의 DDS 플랫폼 고도화를 가속화 하고, GMP 생산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여 장기지속형 및 단백질 의약품 SC제형 플랫폼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약물이 체내에서 일정하게 방출되도록 돕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자체 플랫폼 IVL-DrugFluidic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약효가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항체 및 ADC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IVL-BioFluidic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항체 의약품의 고용량 제형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도 증가나 주입 한계 등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정맥주사(IV) 중심의 치료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팜젠사이언스 '마시는 알부민'으로 간편하게 활력 충전



팜젠사이언스는 자사 '솔루티'에서 액상형 활력 에너지 제품인 '마시는 알부민 메가부스터' (사진)를 공식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솔루티 마시는 알부민 메가부스터는 벨기에산 프리미엄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활용해 한 포당 1만9400mg의 알부민 복합물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즉각적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아르기닌 50mg, 타우린 40mg 등을 배합했다.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1·B2·B6, 9종 아미노믹스, 기력 보충을 돕는 발효녹용추출액도 더했다.

이와 함께 액상형으로 처방에 체내 흡수율을 높였고 알부민 특유의 비린 맛을 최소화한 과잉애플 맛을 구현했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60년 제약 노하우를 가진 팜젠사이언스가 성분을 직접 설계하고, 해협(HACCP) 인증 시설인 대원헬스케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제조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만성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력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CJ올리브영, 'K-라이프스타일'까지 외국인 소비 확산

역직구 채널 글로벌물 시즌세일 행사
마사지용품 누적매출 전년비 40배 ↑
웰니스·탈모관리 등 K뷰티 인기 견인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고객의 구매 양상이 다변화하면서 'K뷰티' 소비 흐름이 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지난 1~7일 공식 역(逆)직구 채널 글로벌물(사진)에서 시즌세일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사지용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간식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뤄냈다.

특히 마사지용품의 이번 행사 1~3일 차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배 이상 증가했다. 얼굴 붓기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지압 패치까지, 얼굴뿐 아니라 목, 다리 등 전신에 걸쳐 사용하는 상품으로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 핵

심이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다이어트 유산균' 등의 수요도 늘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알려진 '컷팅 젤리'의 경우 글로벌물 시즌세일 인기 품목 톱10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성장세에는 국가별 다른 생활 방식과 관심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는 웰니스 상품군이 K뷰티 인기를 견인한다. 1회 섭취분량으로 설계된 파우치형 단백질 셰이크가 미국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고용량 제품이 많은 데 비해 한국 상품은 간편함, 휴대성, 다양한 맛을 갖춰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물 매출 데이터에서 미국 고객 대상 '스포츠프로틴음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1% 커졌다.

K뷰티 신흥 국가인 영국에서는 탈모 관리 상품군이 입지를 넓힌다. 탈모 관리에 관심이 높은 영국 고객 특성과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K뷰티만의 한국형 헤어관리법이 맞물렸다.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의 헤어 앰플은 지난해 영국 고객 인기 상

품 상위권에 진입했고 헤어 부문 매출 또한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

아랍에미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피부 진정 및 장벽 개선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소비가 두각을 보였다. 건조한 기후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하는 소비로 풀이된다.

또 K뷰티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메이크업 제품이, 싱가포르에서는 기초부터 색조까지 구분 없이 폭넓은 소비 양상이 나타났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을 다녀간 방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글로벌물 가입과 이용이 지속 늘고 있다"며 "1만 개 이상의 K뷰티·K웰니스 상품을 갖춘 올리브영 글로벌물을 기반으로 해외 고객들이 일상에서 K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프레시안', 日 뷰티채널 입점

日 '코스메키친' 출시 직후
온라인몰 판매 1위 등 성과

LG생활건강은 일본 내추럴&오가닉 뷰티 채널 '코스메키친' 온·오프라인에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이 입점했다고 8일 밝혔다.

프레시안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의식 있는 뷰티에 중점을 둔다. 모든 제품에 비건 인증을 적용하고 사탕수수 원료로 한 바이오-PET 포장재,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퍼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코스메키친 역시 업사이클링 원재료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성분으로 생산한 뷰티 제품을 주로 선보이는 편집숍이다. 프레시안은 이번 입점으로 일본 친



일본 코스메키친 매장에 '프레시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LG생활건강

환경 웰니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브랜드 대표 제품인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는 코스메키친 출시 직후 온라인몰 톱3 카테고리 판매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과를 거뒀다. /이정하 기자

에스티팜, '니파바이러스 백신' 시료 생산

비임상 단계 전반 지원

에스티팜은 '니파바이러스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료 생산은 에스티팜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팬데믹 대응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 비임상 시료 생산 및 안전성 평가' 용역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발굴된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을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향후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번 과제를 통해 백신 생산 공정 개발부터 분석법 확립, 독성 시험 시료 생산 등 비임상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니파 바이러스 mRNA 백신 시료 생산에는 에스티팜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mRNA 백신의 핵심인 5' 캡핑 기술이 적용된 'SmartCap'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 기술이 적용된 'STLNP'를 활용해, 에스티팜의 차별화된 mRNA 위탁개발생산(CDMO)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